

화훼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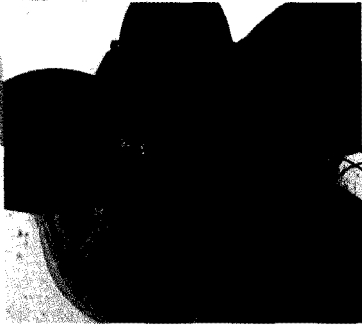
난과식물류



한 경 숙_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난과식물에는 팔레놉시스, 심비디움, 덴파레, 덴드로비움, 온시디움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동양란, 풍란, 강기아님, 석곡 등이 일부 재배되고 있다.

줄기썩음병



아래 잎부터 하나씩 황화되며 잎이 달린 벌브의 기부가 마르고 발병초기에는 줄기에 원형의 병반이 형성된다. 다습한 조건에서는 병반에 살구색~분홍색의 균 덩어리가 작은 점 모양으로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일단 발병이 심해지면 관수 시 병원균이 물에 튀어 앞에서도 원형~타원형의 병반을 형성하고 잎이 썩는 증상을 나타낸다. 원인 병원균은 후사리움(Fusarium sp.)으로 곰팡이의 일종이다. 감염 시기는 생육기중 3회 이상의 분갈이 작업 시 뿌리 및 줄기의 상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전생육기에 걸쳐 발생한다. 분갈이 작업 후 반드시 적정 살균제를 1~2회 살포해야 한다. 현재 난과작물 후사리움병에는 티오파네이트메틸 수화제, 프로클로라즈망가니즈 수화제, 프로클로라즈미탁제가 등록되어 있다.

탄저병



주로 심비디움에서 발생이 많으며, 초기병징으로는 잎에 검은색 작은 점무늬를 형성하고 부정형의 움푹 패인 뚜렷한 검은색의 병반으로 확대된다. 병 발생 후기에는 병반의 내부가 회백색으로 퇴색되고 결국 잎이 말라죽게 된다. 본 병원균은 26~32°C의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생육이 가장 왕성하다. 겨울철의 저온 건조한 조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나치게 높게 온도관리하거나, 동해를 입거나, 관리가 부주의해 약하게 자란 식물체에서는 습도만 충분하다면 일년 내내 발생하기 쉬운 병이다. 가급적 식물체가 물에 젖지 않도록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제약제로는 디티아논 수화제, 클로로타로닐 수화제, 프로피네브 수화제 등이 있다.

점무늬병



전형적인 병징으로는 주로 새순의 어린 잎 전체에 직경 1~2mm의 둥글고 작은 점무늬를 많이 형성하며, 처음에는 반점 주위에 연한 노란색을 나타내나 점차 갈색, 짙은 갈색으로 변색한다. 양란 심비디움에서 주로 발생하며 2~4월경 새순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 많이 발생되어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심비디움은 주로 분재배(盆栽培)되어 상품화되므로 이러한 잎의 반점 증상은 상품가치를 현저히 저하시키므로 철저한 예방이 요구된다. 주로 새순이 많이 나오는 이른봄에 발생하므로 점무늬병이 발생하였던 농가에서는 이 시기에 예방적으로 1~2회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흰비단병



땅가부분 줄기, 잎에 발생하며 처음에는 갈색 수침상의 병반을 형성하고 백색의 균사를 이룬다. 병이 진전되어 병반이 줄기까지 감염되면 포기전체가 생기를 잃고 시들어 결국에는 말라죽는다. 피해식물체는 흰색의 곰팡이가 형성되며 줄기전체가 흰곰팡이로 덮이게 된다. 병든부위에 쥐똥모양의 검은 균핵을 형성하고 줄기의 내부에도 균사나 균핵을 볼 수 있다. 균핵은 토양중에서 오랫동안 생존하여 지속적인 감염이 가능해진다. 병든 식물체는 토양과 함께 신속히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며, 버려진 수태와 바크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꽃노랑총채벌레



주로 꽃봉오리와 어린 잎을 가해한다. 어린 꽃봉오리를 총채벌레가 가해하였을 때 황화되면서 낙화된다. 총채벌레의 피해를 받은 꽃봉오리는 제대로 개화하지 못하며 꽃은 보기 흉하게 된다. 가해를 받은 부위는 갈색으로 변하며, 꽃잎에는 줄무늬가 생기고 변색된다. 총채벌레는 기주 범위가 넓고 번식력이 강하며 세대기간이 짧아 방제가 매우 어려운 해충이므로 꽃봉리가 형성되는 시기에 총채벌레의 발생 여부를 수시로 살펴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 난 총채벌레 방제약제로는 아바멕틴 유제, 스피노사드 입상수화제가 있다.

달팽이류



달팽이는 꽃과 눈을 가해하여 난에서 가장 심각한 해충이다. 경우에 따라 꽃과 눈외에 새 뿌리를 가해하기도 한다.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하여 쉽게 이동하며,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는다. 달팽이는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지만, 일반적으로 적당한 습도와 풍부한 먹이가 있는 서식처를 좋아한다. 달팽이는 대개 비가 온 후 대낮에 서식처에서 빗물을 따라 나오며, 저온다습과 빛은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육조건이다. 달팽이 전용약제로는 상추에 등록된 메티오카브 입제, 인삼과 배추에 등록된 메트알데하이드 입제가 있다. ☹